



K·MILK인증마크는 자부심과 신뢰, 책임감입니다!



국산우유사용인증

K·MILK인증위원회 김연화 위원장

국산우유 사용 인증사업(이하 K·MILK)이 본격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10월초 K·MILK인증마크가 인쇄된 우유 및 유제품을 시중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우리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주고 낙농산업기반을 보호해 줄 'K·MILK호'의 선장, 김연화 K·MILK인증위원장(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을 만나봤다.

K·MILK사업은 생산자-소비자간 신뢰의 채널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 소비자의 열 명 중 일곱 명 이상이 우유나 유제품 등을 구매하면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또한, 시중에 출시된 유가공품의 60%가량이 수입우유를 원료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너무 낮고요. 이번 K·MILK사업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우유의 가치를 인식시켜주고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신뢰의 채널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서 시장이 모두 개방되는 시점에서, 우리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도 지키면서, 우리 우유가 세계적인 식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뿐 아니라, 우리 낙농산업기반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K·MILK인증마크, 정말 믿어도 되나요?

K·MILK인증위원회의 경우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학계, NGO



등이 다 함께 참여해서 서로 견제, 감시,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제품의 원료를 부득이하게 외국산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K·MILK사업에서는 순수하게 우리 우유를 사용한 제품을 엄선키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니깐요. K·MILK라는 거대한 배가 막 출항한 시점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엄격한 원칙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체에서도 K·MILK마크를 부착하면 그만큼 책임감이 커집니다. 소비자들에게 불신 받고 시장에서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더 안전하고 신선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

력하지 않을까요? K·MILK마크는 ‘자부심’의 상징이자, ‘책임감’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니까요. 농가 역시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신선한 우유, 맛있는 우유를 생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증위원회에서도 K·MILK마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단계부터 가공단계까지 철저히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산 원료로 만든 우유와 유제품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먹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안전’입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농가들이 우리 환경에 맞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생산해내는 제품은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외국제품만 소비하면 나중에는 우리가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게 돼요. 사실, 우리 국내산 우유는 품질이나 안전성, 위생 측면에서 K·MILK마크를 달아주기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는 상생의 관계입니다. 생산자를 지키는 길이 결국 우리의 건강, 생명, 환경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와 더불어 K·MILK사업은 낙농업이 6차산업으



로 도약하는 지름길이 되고 낙농업발전의 기저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빵과 과자에도 K·MILK마크가 붙나요?

K·MILK인증사업 소식을 듣고 제과제빵업체에서도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어요. 하지만 제과제빵 분야는 워낙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로는 우유와 유제품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고, 엄격한 선정 과정과 기준 등을 마련해 2차로 제과제빵업체, 프랜차이즈 및 케이터링 업체 등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단계까지 진행된다면 우유를 원료로 한 모든 제품들이 '간간하게, 제대로' 관리될 겁니다.

또한 10월에 K·MILK인증마크 우유가 첫 선을 보이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웹사이트를 개설해 K·MILK을 추진하게 된 계기, 인증기준 및 인증 현황 등 K·MILK인증사업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 소비자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K·MILK 인증사업의 성공을 위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보면 우유가 기능성식품이라며, 콩과 깨를 우유에 넣고 갈아서 먹으니까 피부가 좋아지고 흰 머리 대신 까만색 머리카락이 난다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인체의 근간을 이루는 식품이 바로 우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유는 나이가 들수록 계속 먹어야 하는 식품인데, 대개 성장기에만, 학생들만 먹는 식품으로 인식돼있어요. 이처럼 우유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편견, 선입관 등도 K·MILK 인증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잡아서 소비자들이 우유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가치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할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